

칼럼

장기채 주필



꽃길 따라 걸으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고 /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 봄비로 무딘 뿌리를 뒤흔들며 / 겨울은 우리를 포근하게 했지 / 망각의 눈 속에 대지를 감싸며 / 마른 가지에 어린 생명을 기르면서... 엘리엇의 '황무지' 중에서 따온 글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4월을 일컬어 잔인한 달이라고 한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이를 그저 그렇게, 익숙한 어감으로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이 봄에 큰일이 터졌다. 애먼 꽃들 탓이다. 매화꽃 느긋하게 즐길 겨울은 아예 없었다. 다투어 피버리거나 늦을세라 배꽃과 복사꽃마저 뒤죽박죽 피어내는 사태를 맞았으니, 싸매고 누구는 봄의 무례함을 나무라며 샅대질을 한다. 이게 꽃말미 나는 난리가 아니고 뭐겠는가. 36만 그루의 벚꽃 향연이 펼쳐진다. 1.5km의 벚꽃길이 장관이다. 60여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대한민국

벚꽃축제를 비롯 순천민국가정원에서 서면 학구리까지 이어지는 동천 30리 벚꽃길에서도 활짝 핀 꽃구경 상춘객들의 탄성이 이어진다.

하지만 바람이 벚꽃을 타는지 벚꽃이 바람 그네를 타는지 빛나 무 숲이 파도처럼 출렁거린다. 비에 피었으니 이제는 바람에 하르르 지는 일반 남은 봄꽃들, 여짜 꽃을 잊을 수 있을까. 천지에 봄 바람이 분다. 사방에 봄 향기 그윽하다. 봄이 한창이라 온갖 꽃이 만발하다. 그 중에서도 벚꽃축제는 봄 축제의 대명사다. 진해군항제 여의도 벚꽃축제에는 해마다 수십만 수백만명이 다녀간다.

연분홍 진달래가 그림자만 대구 달성군 비슬산(1084m)이나 인 천 강화군 고려산(436m)을 찾아 보자. '한사람이 꽃길을 걸어도 다면 그도 꽃이 아니겠느냐' 윤홍조 시인의 '꽃길'은 어느 봄날 꽃길 나들이에 나선 이들의 행복 한 얼굴을 연상하게 한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4월을

맞아 매화 · 산수유 · 벚꽃이 꽃망울을 터트리며 저마다 화려한 빛깔과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이맘때쯤이면 꽃향기를 따라 여행을 떠나는 상춘객들도 늘어난다. 사랑하는 이들과 나서는 꽃길 나들이는 대부분 부담이 없어 좋다. 또 봄에 제주도를 찾는다면 청보리의 장관을 맞본다.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찾으면 파란 보리 들결이 해풍에 일렁이는 장관을 눈에 담을 수 있다.

보리밭 면적만도 60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제주도를 찾았다면 가파도에 이어 우도로 건너가 보자. 유채꽃 큰 잔치와 우도 소라 축제가 한창일 것이다. 해너복을 입고 직접 해산물을 채취하는 우도도 해너축제도 좋다. 수영이 부담스럽다면 진천항 주변의 해안에서 소라잡기 체험을 하면 된다. 인심 좋게 모두 무료란다. 전통을 주제로 한 축제도 있다. 전통 어촌 민속 문화 축제인 광안리 어방 축제는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에 설치됐던 전통 민속놀이인 좌수

영어방놀이(중요 무형문화재 제 62호) · 수영아류(중요무형문화재 제 43호) 등 무형문화재와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행사다.

어쨌든 온천지에도 봄기운이 한창이라 온갖 꽃이 만발하다. 마치 봄은 꽃을 위해 있는 듯하다. 철따라 꽃이 피지만 따스한 봄기운을 받으며 만개한 봄꽃은 유난히 아름답고 애착이 간다. 언 땅 밑에서 오랫동안 움츠러들었던 생명이 다시 소생하면서 '살아있다'는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어 더욱 그런 것 같다.

봄꽃은 번잡한 일상에서의 여유와 낭만을 준다. "봄이 오자 성안에 꽃이 만발하여 화려하고, 따뜻한 봄날에 만물은 비야흐로 한창 기를 펴고 자라난다. 때가 좋구나 친구들이 산천경치를 구경가세" 조선조 후기의 평민 잡가(雜歌)인 유산가(遊山歌)는 이렇게 봄을 노래했다. 화창한 봄날에 역시 꽃놀이가 제격이다. 꽃바람꽃향기 속에서 마음까지 꽃물이 되는 게 봄꽃놀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전통을 자랑하는 고양 국제꽃 박람회와 고양 가을 꽃 축제로 이름을 바꿔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화려한 꽃대회를 펼친다. 꽃밭을 거닐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살없이 피고 지는 꽃이 건만 이래서 더욱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다. 꽃은 또 사랑과 안정과 꿈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한다.

社 說

총선 공식선거운동에 부처

차기 국회 권력의 향배를 가르는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13일간의 열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무관하게 혼탁과 과열 양상을 보일 기미가 역력하다. 감염 우려 때문에 대면 선거운동은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SNS 등을 통해 비방과 악선전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비례의석을 더 많이 얻으려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썰매에다 군소정당 난립까지 영향을 끼친 결과다.

정치 도의를 상실한 막말이 선거전 전야에 터져 나온 것은 불길한 전조다. 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가 문제가 됐다. 이 채널 뉴스 진행자와 출연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임기 후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무상급식을 먹으면 된다고 말한 것이다. 비판이 잇따르자 통합당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통합당의 의도는 태극기부대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정서를 노린 것이었겠지만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갔다는 평가다. 오죽하면 당내 일각에서까지 이를

두고 당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겠는가.

미래통합당 인천지역 후보의 "인천 촌구석" 발언도 위태롭다. 2년 전 지방선거 때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이부방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신조어 발설로 크게 타격받은 것을 벌써 잊은 모양이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철회한 10대 공약도 마찬가지다. 공약 중에는 기본소득 월 60만원 지급과, 모든 민간 토지에 1.5% 토지보유세 부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형제의 생각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비례의석을 노리고 급조된 또 다른 정당인 열린민주당이 '검찰총장-검찰청장' 명칭 교체를 주요 공약이라고 내놓은 것도 황당하다. 조국 프레임에 다시 꺼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해 여론 일부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목적임은 천하가 아는 일이지만 말장난에 불과하다. 초·중·고교는 교장인데 왜 대학 총장이냐고 따질 시간에 본질적인 문제를 더 살펴보기 바란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논 · 발두령 소각 각별한 주의 필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의 확산이 증가하는 만큼 농촌지역 농 · 부산물 소각 및 논 · 발두령 소각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논 · 발두령 소각 중 부주의로 인해 인근 아산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대형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발적인 주의 및 화재예방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봄철 농사철이 시작되면 많은 농가에서 봄철 병해충 등을 이유로 논 · 발두령을 태우는데, 실제

농촌마을 인근을 지나다보면 논 · 발두령을 태우는 연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령을 태운 직후 미세동물을 조사한 결과 해충은 11%정도만 죽은 반면 거미 등 해충의 전적은 89%가량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해충 방제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논 · 발두령 소각 등으로 인한 소방차 오인 출동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 출동하게 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하게 된다.

5월 7일부터 개정된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논 · 발두령에서의 쓰레기나 농 · 부산물 소각 시에는 반드시 119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며, 특히 산림과 인접한곳에서는 소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예방만이 소중한 산림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책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시 · 군에서는 농부산물이나 생

활쓰레기 소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법이니 시 · 군 환경과나 산림부서에 사전 신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현장 또는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상황을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전에 신고를 해서 안전지도 받고 안전하게 소각하여 연소확대되는 사례가 없도록하자.

강명근 / 능주119안전센터 소방장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 · 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